

轉換期 사회와 大學知性的 과제

우리 사회는 정치적·경제적 전환기에 서 있다. 우선 횡행하던 冷戰體制와 냉전 이데올로기가 쇠퇴하고 있다. 좌우를 막론하고 급진적 이데올로기는 대중적 정서와 어울릴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사회의 여러 세력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국가의 전횡적 권력행사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가 없게 되고 있다.

우리 정치제도는 제도적·절차적 민주화에 이어 알차고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權威主義的 慣行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非民主的 認識이 아직도 온존하고 있어서 반동적으로 퇴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치적 제도화의 수준은 완벽하지 못하여 정국이 불안정하며, 이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사회생활도 혼란스럽기조차 하다.

우리 경제는 이전과 같이 활발한 성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주저앉을 것이냐를 가름하는 분기점에 놓여 있다. 앞으로의 국제사회가 지금보다 더욱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모하게 되고 우리의 생존도 경제적 힘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國際競爭力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삼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비아냥 섞인 경고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자신들의 사고와 행위에 一大革新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사회전반에 걸쳐 총동적 욕구충족이 근검절약하는 생활태도를 대체하고 있다. 또한 도덕과 사회기강이 무너지고 문화는 전반적으로 오염되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전전한 자본주의는 우리에게서 영영 멀어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轉換期的 危機症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다가오는 21 세기의 사회를 우리가 소망하는 사회로 만들 수 있다. 낡은 이데올로기와 제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철학과 이상을 정립해 나가는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빽빽한 국제경제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사회제도로서의 大學은 바로 이와 같이 중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만약에 우리 대학의 지성들이 전환기적 요청을 教育的 論理로써 해석하여 수용하지 못한다면, 대학 존립의 가치는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大學의 知性들은 현재 이러한 중차대한 시대



慶南大 總長 朴 在 圭

적 요청에 부응할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의 하나는 물론 지금까지 전체적 조망 속에서 체계적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外形的·量的 擴大만을 추구해온 우리 대학들의 成長史에 있다. 나머지 하나의 원인은 대학이 권위주의적 질서 속에서 길들여진 他律的 屬性 때문에 자신의 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대학 지성들은 대학의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현실을 점검하면서 대학에 요구되고 있는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대학들은 지금까지의 發展模型을 버려야 한다.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은 대규모 종합대학으로의 승격과 개편을 대학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量的·外延的 발전모형을 추구해 왔다. 이와 같은 대학의 발전모형이 대학의 기능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物的 條件을 마련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대학 기능의 效率的 遂行을 보장해준 것은 아니었다. 이제 대학운영의 책임자들은 단과대학형·학부형·종합대학형 또는 교육중심형·연구중심형 등 대학의 다양한 발전모형을 탐색하고, 그와 같은 기반 위에서 協同的 分業을 모색함으로써 대학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대학공동체의 가장 핵심적 구성원인 敎授들은 타율과 혼돈의 아수라장에서 자신을 구조하여 自律에 입각한 본연의 位相을 찾는 일을 해야 한다. 교수들은 개체로서 그리고 집단으로서 자신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교수들은 未完의 知性人들을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로 양성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에 유익한 理論的·實踐的 知識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자신의 研究力量을 높이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수들은 學問的 秀越性을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학이 그들간의 협동적 분업화를 도모하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당국이 통제지향적 대학정책을 自律·助成指向的 政策으로 전환할 때 더욱 촉진될 수 있다. 그리고 교수들이 대학의 기능수행에 걸맞는 연구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외부로부터의 財政的 支援이 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가 國家財源 활용의 優先順位에 融通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우선순위는 당연히 大學 教育 投資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 ■